



[산업] 현대차그룹 5개 계열사 'RE100' 참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06



Life

[라이프] 원가 올라도 라면값은 제자리 역성장 '한숨' 너



'이건희 미술관' 서울에 생긴다... 후보지 용산·송현동 압축

문체부,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 발표 통합 관리·연구·교류 추진 최적지 21일 '소장품 특별 공개전' 개막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 2곳이 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故)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을 전시하는 기준과 건립 계획을 담은 '국가기증 이 건희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이 문화재와 미술품 총 2만3181점(국립중앙 박물관 2만1693점, 국립현대미술관 1488점)을 기증한 이후, 문체부는 기증 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국가 기증 이 건희 소장품 활용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황희 장관은 7월 2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국가기증 이 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을 연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기증 이 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총 10차례 논의를 거쳐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전문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확장성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 총 4가지를 이 건희 기증품 활용방

안으로 설정했다.

우선 문체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기증품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과 조사, 연구 작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등록이 완료된 기증품의 분야별 기초조사와 학술연구 등을 통해 그 가치와 의미를 규명하고, 등록과 조사·연구가 완료된 기증품은 순차적으로 이(e)-뮤지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가기증 이 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이 동시에 개막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층 서화실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故) 이 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국립현대 미술관은 서울관 1층에서 '이 건희 컬렉션 특별전 ; 한국미술 명작'을 통해 주요 작품을 국민들에게 선보인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증품 2만3000여 점을 통합적으로 소장·관리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조사·연구·전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증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국립현대 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가 최적이라는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모두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기반시설을 갖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인근에 있어, 연관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협력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과 건립과 별도로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이 건희 기증품 관련 전시를 정례적으로 열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카페·PC방 등 종사자 선제검사"

서울 코로나 신규확진자 역대 최대 선별진료소 확대·심야 대중교통 축소

서울에서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카페, PC방 등 젊은층 이용이 잦은 시설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시장은 7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시는 시민들의 인내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감염병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시는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명령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3명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작년 12월 24일의 552명을 뛰어넘었다. 전체 583명 중 20대는 175명, 30대는 111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7일 오후 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으로 20~30대 비율이 49%(286명)에 달했다.

이에 시는 검사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광장, 강남역, 구파발역 등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을 추가해 현재 26개인 임시선별진료소를 51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갑절 이상 확대된다. 이태원,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지역 등으로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이유로 ▲낮은 접종률 ▲3밀 환경 노출 ▲경증, 무증상 확진자 다수 ▲계절적 영향을 꼽았다.

시는 심야시간대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버스는 8일부터, 지하철은 9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속 운행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시민들의 외출·모임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 오후 10시 이후 야간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디자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가동

일대일 멘토링·창업포럼 등 지원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16일부터 디자인 창업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디자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멘토링(7~12월) ▲디자인 세미나(8~11월) ▲디자인 창업 워크숍(8~11월) ▲디자인 창업포럼(10월) ▲데모데이(10월) ▲네트워킹 데이(9~12월)가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재단이 지난해 신설해 운영 중인 디자인 창업 허브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마포구 신촌로2길 19)에

서 진행된다. 시민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하면 된다.

'멘토링'은 투자, 경영, 제조, 브랜딩 등 참가자가 도움을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다른 주제로 디자인 전문가들의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는 '디자인 세미나'와 '창업포럼'도 준비됐다.

창업가나 다른 참가자와 교류하거나 창업의 협업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창업 워크숍', '네트워킹 데이'도 열린다. 디자인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이 투자 제안서 등을 발표할 수 있는 '데모데이'도 펼쳐진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올해 2차 특별조정교부금 77억 확보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사용

고양시는 지난 7월 5일 경기도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 약 7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7월까지 시가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26개 사업, 약 158억 원이다. 확보한 교부금

은 숙원사업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일반조 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의 확실성을 보완하고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 시 이를 보전하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일종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

복합문화예술작장소 조성(17억) ▲공원 환경개선사업(16억) ▲벽제천 자전거 도로사업(10억) ▲도로정비사업(18억) 등 총 15건이다.

현재 고양시는 코로나19 방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정이 집중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시급하지만 후순위로 밀렸던 지역 숙원사업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7월 8일 (木) 음력 : 5월 29일

수도권 날씨 23~3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8 | 해질 / 19:56

지역별 날씨: 연천 21/30, 동두천 21/30, 가평 21/30, 파주 22/30, 서울 23/30, 양평 23/30, 수원 24/30, 용인 24/30, 평택 23/30, 백령도 19/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日언론 "이재명, 대일 자세 문제 많아...尹은 경제·외교 역량 미지수" ▲中견제 쿼드 4개국, AI·반도체 등 협력... 13일 회의 /사진 뉴시스

▲中,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채굴업체들 탈중국 러시 ▲바이든 "카세야 랜섬웨어 공격 사건 최우선 순위...美파해는 미미"



▲아르헨티나, 코파 결승행...브라질 상대 14년만 우승 도전 /사진 뉴시스 ▲"日조직위서 도쿄올림픽 관중 최대 5000명 방안 부상"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